

## 산림청 산림정책 추진방향

# 활력 있는 일터, 삶터, 쉼터... “숲”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 2014년 산림정책 주요 성과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업종별 맞춤형 기술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목재펠릿 제조시설 확충을 통해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전년대비 100억 원)하였으며, 재난 복구비 기준 상향과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특히, 10대 주요임산물 밤, 뽕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양삼, 산나물, 산지약용식물, 조경수, 분재 등의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 운동을 통해 도시숲, 마을숲 및 학교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산불골든타임제 강화로 연평균 776ha에 달하던 산불피해 면적이 지난해 137ha로 줄었으며, 산사태 피해도 전년 312ha에서 70ha로 줄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총회에서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 채택을 주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하였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산림복원메커니즘을 창설하여 녹화성공국의 경험을 확산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청 단위 기관 1위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피해목 전량제거에는 성공했으나, 방제품질의 저하와 신규 피해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산림분야의 규제개혁은 임업이외의 산업의 산지이용에 집중되어 임업인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 2015년도 산림정책 추진 여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착, 친환경 먹거리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목재와 청정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목재는 상당량 펄프, 칩, 보드 등 저가용도로 이용되며, 단기 임산물은 소규모 분산 재배가 대부분이어서 산주, 임업인 소득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의 영향도 커질 것이다.

1) 밤, 뽕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양삼, 산나물, 산지약용식물, 조경수, 분재 등



한편, 산지에 대한 이용수요는 더욱 다양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른바 6차 산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산악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산지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휴양, 치유, 산림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고, 그동안의 정부주도 공급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비즈니스 창출이 절실하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발생도 늘어나고 발생양상도 이전과는 달라질 개연성이 커져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도 물꼬가 트일 경우, 산림복구 협력 등이 급속도 진전될 가능성이 크며, 녹색성공국의 경험 확산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 2015년도 산림정책 추진 방향

금년도 산림청은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라는 비전 아래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혁신, 국민행복·안전, 통일과 국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소개하겠다.

### 0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체계 선진화

우선 종자 채취에서 목재생산에 이르는 통합적 사업관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목재생산과 조림을 연계한 종묘생산을 연간 48백만 본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종자 공급원인 채종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묘 시설현대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을 편백, 낙엽송 등 경제수종으로 교체하고, 풀베기 설계 감리 도입으로 조림 활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숲가꾸기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유

림에서 설계감리를 100%까지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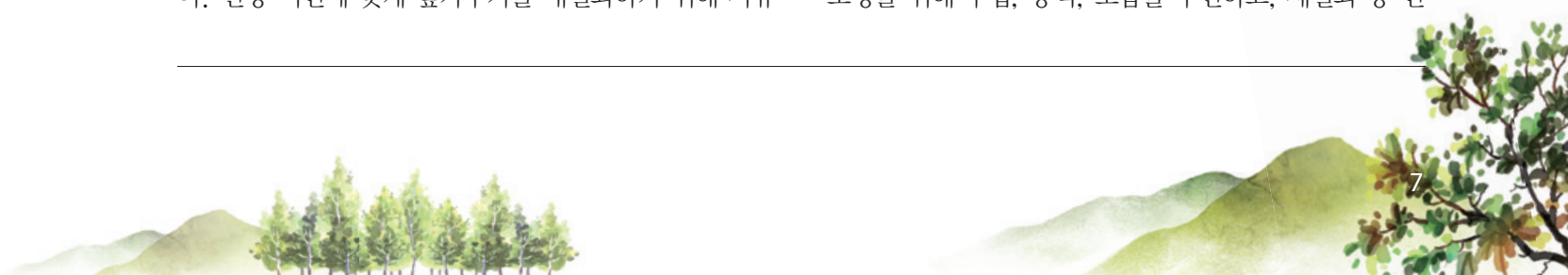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조림지도 작성 보급을 확대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을 통해 경영모델 창출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인프라인 입도와 임업기계를 늘리고, 임업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 02 창조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육성

첫째, 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원이용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목재산업의 노후설비 현대화를 처음으로 지원하고, 가공기술의 보급을 계속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목제품 품질 인증의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목재이용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여 국산재이용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산지내에 버려지는 숲가꾸기 부산물 등의 활용을 늘려서 수집을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단기임산물은 생산·가공 단지를 집단·규모화하고 생산지별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산지·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다. 또한 생산·가공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자원의 6차산업화단지를 6개소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정원, 자생식물, 치유 등을 활용하여 신규 유망산업을 발굴·육성할 것이다.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정원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산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산업화와 연구개발을 촉진할 정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잠재가치가 큰 야생화의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수집, 증식, 보급을 추진하고, 세밀화 등 연



계상품을 보급하여 야생화 자원의 활용 저변을 늘려갈 예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등록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민간이 산림복지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도 계속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FTA에 대응하여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밤, 대추 등 주요 임산물의 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하고, 산양삼 등 미래성장 품목은 산림약용자원 산업의 육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지원, 기술교육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 등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재해보험 적용 확대로 소득안정망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FTA를 경제영도 확대라는 기회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마켓테스트와 시장조사를 지원하여 임산물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인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청정 임산물 재배시 적용되는 재배면적 제한(5만㎡ 미만) 폐지로 임업 경영 규모화를 유도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사업 및 복구계획서 작성에 드는 시간 비용적 부담도 완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함양보호구역 내 농업용 발전사업 허용, 임간방목지내 조사료 파종 신고제 등 농림업 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03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

첫째, 유아, 청소년을 위한 산림체험·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유아의 창의성과 오감발달을 위한 체험 놀이 교육의 공간인 유아숲체험원을 늘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전문성을 갖춘 유아숲지도사 양성을 확대할 것이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확대하고, 교

육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융합행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저변을 넓힐 것이다.

둘째, 청장년층을 위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인프라를 늘리고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숲길 DB구축 및 개방으로 등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 '15년 5월 현재 운영중 5개소(국립 3, 공립 2), 조성중 30개소(국립 7, 공립 23, 사립 1)하고 있으며, 경북 영주·예천에 조성중인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의 마무리와 내년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질환과 계층별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수목장립 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생활권내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숲, 가로수 및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고 전통 마을숲 복원과 지역에 특화된 산림경관숲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확대하고, 도시숲트러스트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04 재해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먼저 산불의 예방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불발생이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등산로 개방 정보 제공 및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늘릴 예

2) '15년 5월 현재 운영중 5개소(국립 3, 공립 2), 조성중 30개소(국립 7, 공립 23, 사립 1)

정이다. 산불 발생시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산불 골든타임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를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고 지자체·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하는 '기계화진화대(隊)'(193대)를 운영할 것이다.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거주자 DB구축 등으로 집중 관리하고 ICT에 기반 한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취약지역에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도로변 산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 산사태 발생 시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확대하여 원인조사, 설계시공 자문 등을 통해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가장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4월까지 피해목을 전량제거하고 책임방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방제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매개충의 우화기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주택가 주변에는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페로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를 실용화할 예정이다. 또 9월 이후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과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점검에도 힘써 표준화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노후시설물 정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시설 설치 시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05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긴 하지만, 관계개선에 따라 언제든지 협력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종자, 묘목 등 자재의 비축을 늘리

고, 대북지원용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 산림황폐화 및 재해발생에 대한 최신자료 수집을 늘리고, FAO등을 통한 협력채널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기업에 투자 유망국 정보, 컨설팅, 바이오매스 조립사업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양자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산림인턴 운영을 통해 청년 전문가 양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상간 합의의제 이행을 통해 국익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인도네시아), 아랄해 생태복원(카자흐스탄), 녹색산촌 복원(베트남)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확대할 예정이다.

UN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한 우리가 주도하는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건조지 녹화파트너십(UNCCD), 산림경관복원 메카니즘(FAO) 등을 적극 이행하여 개도국의 산림복원과 사막화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를 통해 세계와 산불방지 및 진화기술을 공유하고 산불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

###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금년도 산림청의 주요 시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임업인, 임업을 정책의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적 관심 분야로 산림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정책의 성과가 임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언제든지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